

## 眩暈의 精神醫學的 考察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金根宇 · 具炳壽 · 李源哲

### 1. 緒 論

眩暈이란 說文解字의 註에 의하면 '眩'은 '目無常主也'라 하여 눈의 초점이 없음을 말하고 있고, '暈'은 '光也'라 하여 빛나는 氣運을 意味한다.<sup>1)</sup>고 하였다. 韓醫學的으로는 '眩冒'라고도 하니 '眩'은 '黑'을 말하고, '暈'은 머리의 감각이 돌아서 어지러운 것을 말하며, '冒'라는 것은 정신이 흐려지는 것이며,<sup>2)</sup> '目眩' 또는 '頭暈'을 指稱하며, '目眩'은 眼花 卽 눈앞이 캄캄하고 보이는 것이 흐릿한 것이며, '頭暈'은 자신과 주위가 빙빙도는 느낌이 들며 잘 서 있지 못하는 것으로, 두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며 統稱하여 '眩暈'이라 한다.<sup>3)</sup>

眩暈의 病機에 관한 최초의 文獻인 內經 <素問: 至眞要大論>에서 '諸風掉眩, 皆屬於肝'<sup>4)</sup>이라하여 眩暈이 肝, 風, 木의 病임을 말하고, '厥陰之勝, 耳鳴頭眩'<sup>5)</sup>, '厥陰司天, 客勝則耳鳴掉眩'<sup>6)</sup>이라하여 外邪 특히 風邪에 의한 病임을 말하고 있으며, <靈樞: 海論>에서 '髓海不足' 卽 腎水不足이 眩暈을 發하다<sup>7)</sup>라고 하고 이후 '丹溪'는 '無痰則不作眩'<sup>8)</sup>이라 하며 '或因內傷七情, 氣虛眩暈'<sup>9)</sup>이라 하여 痰, 七情 및 虛함으로서 眩暈이 발생함을 언급하고 있다. 許<sup>10)</sup>는 風暈, 熱暈, 濕暈, 痰暈, 氣暈, 虛暈의 六種으로 分類하여 外感 및 內傷에 의해 眩暈이 발생한다고 했다.

精神醫學의 韓醫學的인 病因<sup>11)</sup>으로는 火, 痰, 血虛,

腎虛로서 各各 眩暈의 病因과도 연관성을 가지며 실제 臨床에서도 七情氣鬱을 隨伴한 질환에서 痰에 의한 病機에서 眩暈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現代에는 환경의 복잡화, 초고속도의 交通수단 등에 의하여 人체는 他動的으로 加速度 刺戟에 시달리게 되어 眩暈이 유발될 기회가 增多되며, 현대문명의 부작용으로 各種 stress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頭, 頸部外傷과 各種 산업재해와 그 후유증 등으로 眩氣症, 특히 心因性眩氣症은 더욱 增加하는 경향이 있다.--12)

西洋醫學的으로는 眩暈을 回轉感을 느끼는 眞性眩暈과, 回轉感을 느끼지 않고 全身疾患에 해당하는 假性眩暈으로 나누는데, 특히 假性眩暈이 精神醫學的인 면에서 關聯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측면이 韓醫學的인 眩暈의 病因病機와도 關聯性이 있다고 思料되어 眩暈을 東西醫學的으로 考察을 한 결과 若干의 知識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

2. 李樞: 醫學入門, 서울, 高麗醫學, p.357, 1989. "或云眩冒, 眩, 言其黑, 暈, 言其轉, 冒言其昏."
3. 上海中醫學院 編: 實用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406, 1986.
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 서울, 新光文化社, p.187, 1984.
5. 洪元植: 上揭書, p.181.
6. 洪元植: 上揭書, p.184.
7. 洪元植: 上揭書, p.269.
8.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p.458, 1982.
9. 朱震亨: 上揭書, p.460.
10.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外形篇, pp.63-66, 1981.
11. 黃義完: 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p.157, 1989.
12. 李達浩: 眩氣症, 서울, 麗文閣, p.1, 1986.

1. 段玉裁: 說文解字注,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p.130, p.304, 1972.

## II. 本 論

### 1. 眩暈의 病因 病機에 관한 韓醫學의 考察

<素問: 至眞要論>에서는 “모든 바람처럼 흔들리고 어지러운 것은 肝에 屬한다.”<sup>13)</sup>라 하였고, “厥陰風木이 勝하면 耳鳴, 頭眩하고, 어지럽게 眩하러 하고, 가슴이 막힌 듯 한다.”<sup>14)</sup> 하였고 “厥陰司天에 客이 勝하면, 耳鳴, 掉眩하고, 甚하면 咳한다.<sup>15)</sup> 하였고, <素問: 氣交變大論>에서는 “風木의 氣運이 過하면 風氣가 流行하여 脾土가 邪氣를 받아 泄瀉, 食慾減退, 體重, 煩悶, 腸鳴, 腹滿을 양으며, 上으로는 歲星(木星)에 應하는데 甚하면 眩하고, 眩暈과 머리의 疾病을 양는다.”<sup>16)</sup>하여 平素부터 陽盛火旺한 者가 肝陽上亢하고 忿怒, 煩怒가 鬱積하여 氣鬱化火하거나 肝陰이 消耗되어 肝風內動하므로써 風火가 上擾하여 頭暈이 發生한 것으로 보며<sup>17)</sup> 주로 肝, 風, 木 과의 關係를 説明하며, 運氣와 의 關係도 더불어 나타내고 있으며 주로 實證인 病機로 보고 있다.

<靈樞: 海論>에서는 腎水不足이 眩暈을 일으키는 原因이라고 보았으니 “髓海가 不足하면 腦가 轉하고 耳鳴하고, 다리가 시리고 眩暈하여 보이는 바가 없다.”<sup>18)</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腦髓의 充滿과 不足을 알 수 있는데 만약 나이가 들어 腎精이 虧虛하거나 房事過多로 陰靜의 消耗가 過度하거나 先天之氣가 不足하거나 或은 房勞過度로 傷骨損髓하거나 或은 陰虛火旺하며 遺精頻數하거나 或은 腎氣가 虛하여 精液가 不固하고 滑泄이 過多하여 眩暈이 發生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sup>19)</sup> <靈樞: 衛氣篇>에서는 “上虛則眩”<sup>20)</sup>이라 하여 上氣不足이 眩暈됨을 말하고 있으며,<sup>21)</sup> 여기서의 ‘上虛’는 ‘陽中之陽虛’를 말하고 있어,<sup>22)</sup> 모두 虛함으로 인하여 眩暈이 發生됨을 말하고 있다.

<靈樞: 大惑論>에서는 “臟腑, 筋骨, 血氣之精은 經脈과 같이 目系가 되어 위로 올라가 腦에 들어가 목덜미 가운데로 나오고 體虛 할때 項中에 邪氣가 入하면 그것이 깊이 들어가서 目系를 따라 腦에 들어가면 머

리가 돌아가고 目系가 急하면 눈앞이 어지럽다.”<sup>23)</sup>라 하여 體虛한 가운데 外邪가 入해 眩暈이 發生함을 말하고 있으며, 以上과 같이 內經에 있어서의 眩暈의 認識은 內風, 外風, 및 腎水不足의 病因病機으로써 크게 나눌 수 있다.

張<sup>24)</sup>은 “頭眩은 少陽經病으로서 口苦, 咽乾, 目眩하니, 少陽은 表裏之間에 있으며 表邪가 入裏하여 表部가 陽虛하면 目眩하게 되며 二陽이 兼病하여 頭項部가 뻐뻐하게 아프고 眩暈, 眩冒하는 것은 少陽太陽兼病으로 眩暈은 表가 虛하기 때문이며, 傷寒病에 일어나면 어지러운 것은 發汗, 吐, 瀉下後에 陽이 虛하기 때문이다.”라 하여 六經病中 少陽經病 및 太陽少陽兼病으로 보았으며 그 病機는 表陽이 虛한 상태에서 邪氣가 入裏한 것으로 보고 있다.

<諸病原候論>에서는 “眩暈은 血氣가 虛해서 風邪가 腦로 入하여 目系에 影響하여 發生한다.”<sup>25)</sup>라하여 血虛

14. 洪元植: 上揭書, p.181.  
“厥陰之勝, 耳鳴頭眩, 憤憤欲吐, 胃隔如塞.”
15. 洪元植: 上揭書, p.184.  
“厥陰司天, 客勝則耳鳴掉眩, 甚則咳.”
16. 洪元植: 上揭書, p.137.  
“歲木太過, 風氣流行, 脾土受邪, 民病飧泄, 食減, 體重飧泄, 食減, 體重煩冤, 腸鳴腹之滿, 上應歲星, 甚則忽忽善怒, 眩冒巔疾.”
17. 李鳳教: 症狀鑑別治療, 서울, 成輔社, p141, 1992.
18. 洪元植: 上揭書, p.269.  
“髓海不足, 則腦轉耳鳴, 腰痠眩暈, 目無所見.....”
19. 上海中醫學院 編著: 上揭書, p.407.
20. 洪元植: 上揭書, p.299.
21. 許浚: 上揭書, 外形篇 p.61, 1981.  
“上虛則眩, 又曰, 上氣不足 目爲之眩”
22. 張介賓: 景岳全書, 上海, 上海科學記述出版社, pp.321, 1984.  
“頭眩雖屬上虛, 然不能無涉於下, 蓋上虛者, 陽中之陽虛也, 下虛者, 陰中之陽虛也.”
23. 洪元植: 上揭書, p.345.  
“臟腑, 筋骨, 血氣之精, 如脈竅爲目系, 上屬於腦, 後出於項中, 故邪中於項, 因 連其身之虛, 其入甚則隨眼系而入於腦, 入於腦, 則腦轉, 腦轉則引目系焉, 則目眩以轉矣.”
24. 張機: 仲景全書, 台北, 集文書局, pp.559-560, 1972.  
“頭眩 少陽之爲病 口苦 咽乾 目眩而 少陽居表裏之間 表邪所傳漸行於裏 表中陽虛 故時時目眩也 二陽兼病 頭項強痛 或眩暈 眩冒者 少陽與太陽兼病 故眩者 責其虛也, 傷寒有起則 頭眩與眩冒者 皆發汗吐下 後所致 是知其陽虛也.”
25. 巢元方: 諸病原候論, 台北, 國立醫學研究所, p.71, 1964.  
“風頭眩者, 有血氣虛, 風邪入腦而引目系故也.”

13. 洪元植: 上揭書, p.187.  
“諸風掉眩, 皆屬於肝.”

한데 風邪가 入腦해서 생긴 眩暈을 말하고 있다.

<河間三六書>에서는 “바람처럼 어지럽고 흔들리는 것은 肝木에 屬하며 흔들리고, 눈앞이 캄캄하며, 빙빙 도는 것은 風이 움직이는 것을 주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風木이 旺盛하면 반드시 金이 衰하여 木을 制하지 못하고 木이 다시 火를 生하게 되는데, 風과 火는 모두 陽이며 陽은 動하기 때문에 風火가 動하여 相搏하면 흔들리고 돌아가게 되는 고로 火는 본래 動하기 때문에 風을 만나면 자연히 흔들리고 돌아가게 된다.”<sup>26)</sup>라고 하여 河間의 醫學思想에서도 나타나는 五運六氣의 應用 및 특히 主火論에 根據<sup>27)</sup>하여 風이 眩暈을 誘發한다고 하였다. 이 風은 運氣의인 해석에 의해 火를 誘發하여 風火가 眩暈을 일으키게 하는 病因으로 보아 眩暈에 火의 개념을 도입 하였다.

<儒門事親>에서는 “무릇 婦人頭風眩暈은 차를타거나 배를타면 眩暈과 眼澁이 있으면서 손이 마비되고 머리카락이 넘어가며, 健忘, 喜怒의 症狀이 나오며 이것은 胸中의 宿痰이 邪氣로 작용한 것으로, 가히 瓜蒂散으로 모두 吐한 후에 五苓散, 大人參半夏丸을 복용하면 낫는다.”<sup>28)</sup>고 하여 眩暈이 頭風과 함께 胸中의 宿痰에 의해 發生되며, 眩暈의 病機에 宿痰이 관련함을 주장하였다.

<丹溪心法>에서는 “眩暈은 痰을 끼고 氣虛와 火를 나란히 하고 있다. 故로 治痰이 爲主가 되고 補氣藥과 降火藥을 佐하며, 痰이 없으면 眩暈하지 않는다. 그리고 火로 인해서 痰이 動한다. 或은 外感이나 脾虛內傷, 氣虛 그리고 七情傷으로도 眩暈을 야기한다.”<sup>29)</sup>라고 하여 丹溪의 相火論에 根據<sup>30)</sup>해서 火로 因한 痰이 眩暈을 일으키는 중요한 病機로서 작용하며 ‘無痰則不作眩’이라 하여 內經에서의 眩暈을 보는 視覺과는 달리하고 있다. 이외 外感, 內傷七情 및 氣血虛가 眩暈의 病因으로 作用함을 말하고 있다.

<醫學正傳>에서는 “眩暈하되 氣虛하고 肥白한 사람은 濕痰이 上部에 있고 陰火가 아래에서부터 올라와

있으니 이것은 痰이 虛火를 兼해서 頭目에 上衝하여 正氣를 生化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홀연히 眼黑, 生花하는 것이다. 마치 舟車에 앉아서 도는 것과 같다. 심하면 卒倒하여 정신을 잃는 것과 같다. 丹溪가 말하는 痰이 없으면 眩暈하지 않는 것과 같다. 무릇 피부가 검고 마른 사람이 신체가 薄弱하며 眞水가 없는데 勞役을 과도하게 하여 相火가 上衝하여 가끔 眩暈하는 것은 濕痰이 있기 때문이다.”<sup>31)</sup>고 하여 肥白人과 黑瘦人에 있어 眩暈의 病機를 각각 痰과, 腎水不足으로 보아 丹溪의 痰因論을 따르면서 體質의인 分類를 하였다.

<萬病回春>에서는 “風寒暑濕의 外感이나 七情鬱結해서 痰飲이 생기고 下焦가 虛하고 上焦가 實하면 모두 眩暈을 일으킨다. 그리고 眩이라는 것은 眩다는 것과 흔들리고 돌아가는 의미이다. 이것은 눈을 감고 눈이 어둡고 몸이 들고 귀가 멍한 것이 배나 수레위에 탄 것 같으며 일어나면 넘어질 것 같은 것이며 모두 極虛해서 생긴 것이다.”<sup>32)</sup>라고 하였다.

<壽世保元>에서는 “風寒暑濕의 外感이나 氣가 鬱結해서 생기는 痰이나 下焦가 虛하고 上焦가 實한 것이 모두 眩暈을 誘發시킨다. 眩이라는 것은 그 검은 것을 말하며, 暈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冒는 어

26. 劉河間: 河間三六書, 서울, 成輔社, p.257, 1975.

“諸風掉眩, 皆屬於肝木, 掉搖也, 眩昏亂旋運也, 風主動故也, 由風木旺, 必是金衰不能制木而木復生火, 風火皆屬陽, 多爲兼化, 陽主乎動, 兩動相搏則爲之旋運, 故火主動也, 焰得風則, 自然旋運.”

27. 洪元植 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218, 1984.

28. 張子和: 儒門事親, 台北, 旋風出版社, 卷五 p.7, 1967.

“夫婦人頭風眩暈 登車乘船亦眩暈眼澁 手癱髮退 健忘喜怒 胸中宿痰之邪然也 可用瓜蒂散吐之 吐訖 可用長流水煎五苓散 大人參半夏丸 兼常服愈.”

29. 朱震亨: 上揭書, p.458, p.460, 1982.

“頭眩, 痰挾, 氣虛併火, 治痰爲主, 挾補氣藥, 及降火藥, 無痰則不作眩, 痰因火動.....或因感風暑, 或因內動七情, 氣虛眩暈, 或因脾虛, 不進飲食, 或因胃弱.....”

30. 洪元植 著: 上揭書, p.220.

31.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p.171, 1986.

“眩暈 氣虛肥白之人, 濕痰滯於上, 陰火起於下, 是以痰挾虛火, 上衝頭目, 正氣不能勝敵, 故忽然眼黑生花, 惹坐舟車而旋運也, 甚而至於卒倒無所知者有之, 丹溪所謂無痰不能作眩者, 正謂此也. 若夫黑瘦之人, 軀體薄弱, 眞水虧欠, 或勞役過度, 相火上炎, 亦有時時眩暈, 何濕痰之有載.”

32. 龔延賢: 萬病回春, 서울, 醫聖堂, 卷上 p.220, 1993.

“風寒暑濕, 氣鬱生痰, 下虛上實, 皆頭暈眩風, 眩者言其黑運旋轉, 其狀目閉眼暗, 身轉耳聾, 如立舟車之上, 起則欲倒, 蓋虛極.”

되고昏迷함을 말한다. 風邪가 入하면 有汗하고 寒邪에 入하면 땅기며 아프고, 暑邪가 入하면 답답하다. 이것은 體虛함에 四氣가 入하여 眩暈을 發生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喜怒哀樂, 悲恐憂思의 七情의 過極으로 痰이 生하여 氣를 따라 올라가 上厥하여 眩暈이 생기니 이것은 七情이 虛를 따라 眩暈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陰慾이 過度하여 腎氣가 納歸하지 못하여 氣가 逆上하니 이것은 眩暈이 氣虛에서 생기는 것이 明白하다. 또 코피를 많이 흘리거나 崩漏가 甚하여 肝이 營氣를 收攝하지 못하여 血이 妄行하니 이것도 眩暈이 虛해서 생기는 것을 明白히 하고 있다.”<sup>33)</sup>라고 하여 外感이나 內傷七情으로 因한 痰飲이 眩暈을 誘發함을 말하고, <壽世保元>에서 追加하여 論하기를 腎氣虛하거나 血이 妄行하여 眩暈을 發生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下虛上實’하여 眩暈이 發生함을 말하여 <靈樞: 衛氣篇>의 ‘上虛則眩’의 理論에 反하나 龔이 주장하는 ‘上實’은 痰涎과 風火가 實하다는 것이고, 下虛는 氣와 血이 虛하다는 것이다.<sup>34)</sup>

<醫學入門>에서는 “患者의 肥瘦를 分別하며, 肥白人은 濕痰이 위에 滯하고, 火가 아래로 부터 일어나, 그 痰이 火에의해 上衝하여 眩暈이 일어나고, 瘦人은 腎水가 虧少하고, 相火가 上炎하여 眩暈을 發하며, 邪가 項部에 入하여 그 사람의 虛한 것을 만나서 그 邪氣의 침입이 깊게 되어 眼系를 따라 腦에 침입하여 腦轉이 發生하며 腦轉하게 되면 目系를 당겨서 수축하게 되므로 眩하게 된다.”<sup>35)</sup>고 하여 肥白人과 黑瘦人을 區分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上虛해도 어지럽고 上氣가 不足해도 어지럽다. 眩暈證은 모두 上焦가 實하고 下焦가 虛해서 생긴다고 한다. 대체로 虛하다는 것은 氣와 血

이 虛하다는 것이고 實하다는 것은 痰涎과 風化가 實하다는 것이다. 眩暈證은 痰火가 動하면 생기는데 痰이 없으면 眩暈이 생기지 않는다. 비록 風으로 생기는 것이 있다고 해도 이때에도 반드시 痰이 있다.”<sup>36)</sup>라 하여 <靈樞: 衛氣篇>의 ‘上虛則眩’, 虞의 上實下虛의 病因論 및 ‘丹溪’의 痰, 火, 및 風이 그 주된 病機로써 작용함을 말하였으며, 許는 6가지로 분류하였는데, “風暈은 傷風하여 眩暈이 생기는 것인데 惡風, 自汗, 或 원래 頭風證이 있던 사람이 風暈이 생기고, 熱暈은 火熱이 위로 치밀어 올라 煩渴引飲하고 或 暑月에 熱이 甚해서 發生하며, 痰暈은 痰이 盛하여 嘔吐하고, 머리가 무거워 들지 못하는 證인데, 眩暈하고 心悸하는 것은 痰飲症으로, 氣暈은 七情過傷하여 氣鬱하여 生痰涎하고 그 痰涎이 心竅를 막았기 때문에 생긴 眩暈이다. 眉稜骨痛이 있어 眼不可開하며, 虛暈은 內傷氣虛해서 眩暈하고, 失血過多하여 생기며, 濕暈은 비를 맞고 濕에 傷해서 頭重하고 鼻塞聲重한다.”<sup>37)</sup>고 하여 外感과 內傷으로 可

34. 許浚: 上揭書, 外形篇 p.61.

35. 李樞: 上揭書, p.357.

“頭眩, 欲倒辨, 瘦, 肥, 或云眩暈, 眩, 言其黑, 暈, 言其轉, 冒言其昏, 一也. 虛者, 內外之邪, 乘虛入表而上攻, 實者, 內外之邪, 鬱痰上結而下虛. 大概, 肥白之人, 多濕痰, 滯於上, 火起於下, 痰因火上而衝, 所謂無痰不作眩者是也, 治宜以痰爲主, 兼補氣降火. 瘦人, 多腎水, 虧少, 相火, 上炎而眩暈, 所謂風勝則地動, 火得風則焰旋, 是也, 治宜滋陰降火, 化痰抑肝. 此以肥瘦, 爲主, 亦丹溪常法也, 後, 倣此. 眼花昏暗屋旋飛, 經曰, 尙蒙招尤, 尙蒙者如以物, 蒙其首, 招尤者, 招搖不定, 如立舟車之上, 起則欲倒, 眼昏耳聾, 屋如旋轉, 甚則卒倒不省人事, 乃肝所主也, 又曰諸脈, 皆系於臟腑, 筋骨氣之精, 而與脈, 并爲系, 上屬於腦, 後出於項中故邪中於項, 因達其身之虛, 其入深則隨眼系, 入於腦則腦轉, 腦轉則引目系, 急而眩矣.”

36. 許浚: 上揭書, 外形篇 pp.61-63.

“上虛則眩, 又曰上氣不足, 目爲之眩. 眩暈皆稱爲上盛下虛, 皆虛者, 氣與血也, 實者痰涎風火也. 眩暈者, 痰因火動也, 皆無痰不能作眩, 雖因風者, 亦必有痰.”

37. 許浚: 上揭書 外形篇, pp.63-66.

“眩暈有風, 有熱, 有痰, 有氣, 有虛, 有濕, 風暈 傷風眩暈, 惡風, 自汗, 或素有頭風而發作, 熱暈 火熱上攻, 煩渴引飲, 或暑月熱盛, 痰暈 痰盛嘔吐, 頭重不舉, 眩而悸是飲, 氣暈 七情過傷氣鬱生涎, 痰涎米塞心竅而眩暈, 眉稜骨痛, 眼不可開, 內傷氣虛而暈....., 失血過多而暈, 濕暈 冒雨傷濕 鼻塞聲重.”

33. 龔延賢: 壽世保元, 서울, 醫聖堂, p.287, 1993.

“風寒暑濕, 氣鬱生痰, 下虛上實, 皆暈而眩, 眩者言其黑, 暈言其轉, 冒言其昏, 眩暈之如冒眩, 其義一也. 其象目閉眼眩, 身轉耳聾, 如登舟車之上, 起則欲倒, 皆虛極乘寒得之. 風則有汗, 寒則掣痛, 暑則熱悶, 濕則重滯, 此四氣乘虛而眩暈也. 喜怒哀樂, 悲恐憂思, 鬱而生痰, 隨氣上厥, 七情致虛而眩暈也. 陰慾過度, 腎家不能納氣歸元, 使諸氣逆奔而上, 此眩暈之出於腎氣虛也明矣. 吐衄崩漏, 肝家不能收攝營氣, 使諸血失道妄行, 此眩暈之生於血虛也, 又明矣. 以至新產之後, 血海虛損, 或瘀不行, 皆能眩暈.”

게 나누었다.

<奇效良方>에서 “眩暈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대개 痰火로 病이 생긴다.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眩暈은 비록 痰火가 많으나 腎虛로 因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sup>38)</sup>라하여 虛實로 나누어 각각 痰과 腎虛를 眩暈의 病機로 보았다.

<景岳全書>에서는 論하기를, “頭痛은 上實의 證이고 頭眩은 下虛의 證이다. 故로 內經에 分別하여 말하기를 頭痛顛疾은 上實下虛하고, 또 말하기를 上實下虛는 顛疾이 된다라 했다. 이것은 邪氣가 上部에 있기에 上實이라 한 것이다. 眩暈은 말하기를 上氣不足이라 하고, 또 上虛한 卽 眩暈이 上實하다고 들어 본 일이 없다.”<sup>39)</sup>라 하고 “眩暈은 虛한 경우가 十中八九이고 火를 兼하고 痰을 兼한 경우는 十中一二에 不過하다.”<sup>40)</sup>라하여 陽中之陽, 陰中之陽, 傷氣, 脾弱, 榮衛虛弱이 眩暈을 誘發시키는 病機로써 作用한다고 하였으며, 上虛와 下虛의 區別을 陽中之陽과, 陰中之陽으로 나누었다.

<張氏醫通>에서는 外感 및 內傷七情이 痰火에 의해 眩暈을 誘發한다<sup>41)</sup>하여 ‘丹溪’, 및 ‘龔廷賢’의 理論을 따랐고, <臨証指南醫案>에서는 “內經 <素問: 至眞要大論>에 ‘諸風掉眩, 皆屬於肝’이라 하여 머리는 諸陽의 우두머리이며 耳目口鼻는 모두 淸空之竅로써 眩暈하는 것은 外邪에 의한 것이 아니라 肝膽의 風陽으로 보고, 심하면 정신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sup>42)</sup>라 하여 內經의 理論을 基礎로 外邪에 의한 病因論을 不定하고 肝風이 內動함을 주장하였고, <醫宗金鑑><sup>43)</sup>에서는 風熱濕의 外邪 및 氣鬱에 의해 眩暈함을 말하여 歷代 醫家의 眩暈論에 따랐으며, <類證治裁><sup>44)</sup>에서는 七情傷 및 腎水不足이 眩暈을 誘發함을 論하고 있고, <醫門寶鑑><sup>45)</sup>에서는 肝風內動 및 外感和 七情內傷이 眩暈을 誘發함을 論하고 있다.

以上 歷代醫家에 의한 眩暈의 病因病機를 考察하였는바 현대의 中醫辨證에서 眩暈을 보는 觀點 역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實用中醫內科學><sup>46)</sup>에서 眩暈을 辨證하며 나는 것을 보면 ‘肝陽上亢’, ‘腎精不足’, ‘氣血虧虛’, ‘痰濁中阻’, ‘瘀血內阻’로 나누어 그 病理機轉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肝陽上亢 眩暈은 陰虛하고 陽亢한 사람이나 肝氣鬱結한 사람이 傷陰함에 風陽을 動하거나 腎陰弱하여 肝을 濡養하지 못하여 眩暈한다. 腎精不足 眩暈은 房事, 勞役, 先天的으로 腎氣가 弱한 사람이 精竅가 不固하고 滑泄이 過多하여 眩暈한다. 이상의 두가지는 內經의 ‘諸風掉眩 皆屬於肝’<sup>47)</sup>, ‘腦爲髓之海 髓海有餘則輕勁多力, 髓海不足則腦轉耳鳴 脛痠眩暈’<sup>48)</sup>의 病機를 따르고 있다. 이의 氣血虧虛 眩暈은 七情, 內傷, 年老, 久病, 失血 등으로 氣와 血이 虛하여 肝이 營養하지 못하여 역시 眩暈하며, 痰濁中阻 眩暈은 脾胃損傷, 肺氣不足, 腎虛 및 肝鬱하여 痰을 형성하여 眩暈

39. 張介賓: 上揭書, p.321.

“頭痛之病, 上實證也, 頭眩之病, 上虛證也, 故內經分別甚明曰, 頭痛顛疾, 上實下虛, 又曰上實下虛, 爲顛疾, 此以邪氣, 在上所以爲痛, 故曰上實也, 至若眩暈之疾則, 曰上氣不足, 又曰上虛則, 眩未聞言上之實也.”

40. 張介賓: 上揭書, pp.320-322.

“眩暈一證, 虛者, 居其八九而, 兼火兼痰者, 不過十中一二耳,……頭眩雖屬上虛, 然不能無涉於下, 蓋上虛者, 陽中之陽虛也, 下虛者, 陰中之陽虛也,……”

41. 張璐: 張氏醫通, 서울, 一中社, 卷六 p.298, 1992.

“外感六淫, 內傷七情, 皆能眩暈, 然無不因痰火而作, 無火不動痰, 無痰不作暈, 須以淸火豁痰爲主, 而兼治六淫之邪, 無不愈者.”

42. 葉天士 著 徐靈胎 評: 臨証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35, 1991.

“經云, ‘諸風掉眩, 皆屬於肝’, 頭爲六陽之首, 耳目口鼻皆系淸空之竅, 所患眩者, 非外來之邪, 乃肝膽之風陽上冒耳, 甚則有昏厥跌仆之虞.”

43. 吳謙: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卷四十二 p.95, 1982.

“因風眩暈頭風痛, 熱暈煩渴火上攻, 氣鬱不伸, 痰嘔吐, 濕則重痛虛動增.”

44. 林佩琴: 類證治裁, 서울, 成輔社, p.347, 1990.

“頭爲諸陽之會, 煩怒傷陽, 陽升風動, 上擾顛頂, 耳目乃淸空之竅, 風陽旋沸, 斯眩暈作焉, 良由肝膽乃風木之臟, 相火內寄, 其性主動主升, 或有身心過動, 或由情志鬱發, 或由山巖, 或由冬藏不密, 或由高年腎液已衰, 水不涵木, 或由病後精神未復, 陰不吸陽, 以至目昏耳鳴, 震眩不定,……”

45. 周命新: 醫門寶鑑, 서울, 杏林書院, 卷三 p.176, 1975.

“眩暈 眩者言其黑, 暈者言其轉, 冒言其昏, 皆精神昏暗旋轉, 不定之貌, 蓋體虛之人, 外感邪氣, 內傷七情鬱結 成痰之致也.”

46. 上海中醫學院 編: 上揭書, pp.406-407.

47. 洪元植: 上揭書, p.187.

48. 洪元植: 上揭書, p.269.

38. 方賢: 奇效良方, 香港, 商務印書館, p.539, 1977.

“眩暈分之爲二, 皆有痰火爲病, 以此分爲二者, 眩數雖屬痰火, 未嘗不由腎虛.”

을 발생시킨다. 瘀血內阻 眩暈은 外傷 및 出産時의 瘀血이 上攻하여 眩暈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眩暈의 病機를 虛實로 나눔에 있어 虛가 本이 된다. 이것은 實이 되는 風, 痰, 火, 瘀血이 肝腎不足, 心脾虧損의 虛에 基礎하기 때문이다.<sup>49)</sup> 그리고 內經의 '諸風掉眩, 皆屬於肝'의 眩暈의 病機 역시 腎水不足에 根據하니 眩暈은 虛가 本이 됨을 알수 있다.<sup>50)</sup> 眩暈을 肝 자체의 病變으로 보아 肝實과 肝虛로 나누어도 볼수 있다. 卽 肝血이 不足하거나 肝陽과 肝風이 上擾하여 各各 眩暈을 誘發하니 氣血이 上部를 營養하지 못하거나 陽亢火盛하거나 風痰濕이 上部를 動搖시킨 이유에서 비롯된다.<sup>51)</sup>

## 2. 眩暈의 西洋醫學的 考察

### 1). 概要

眩暈(vertigo)이나 眩氣(dizziness)는 '어지러움'을 나타내는 말이나 임상적으로 그 의미는 다르다. 眩暈이란 回轉感, 不動感, 眼前暗黑感등이 동반된 平衡障礙로서 前庭神經, 前庭器管, 前庭核 등의 機能障礙가 원인이다. 그러나 眩氣는 症狀이 輕한 상태로 上記 器管의 輕微한 障礙가 원인일 수도 있으나 보통은 다른 器管의 障礙가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眩暈과 眩氣의 鑑別이 중요하다.<sup>52)</sup> 여기서 眞性 眩氣症(vertigo)이라고 부르는 眩暈은 自己感覺 중에 있는 공간과 外界의 실제공간(이것은 視覺에 의해 확인된다)과의 사이에 不一致된 運動感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外界가 빙빙 돈다', '내가 회전하고 있다', '세계가 가라앉는다, 또는 떠오르고 있다'와 같이 언제나 운동성의 호소로 된다. 眞性 眩氣症에 있어서는 惡心, 嘔吐, 頭痛, 冷汗 등을 수반한 것이 많으며 신체 운동에 따라서 언제나 증상이 악화된다. 이것에 반해서 假性 眩氣症(pseudovertigo), 卽 眩氣(dizziness)에서는 上述의 내용이 신체의 불안정감, '어떨어질 한 느낌', '일어섰을 때에 느끼는 眩氣症' '머리가 텅빈다' '머리가 下降感(head lightedness)등으로서 호소하는 것이며, 확

실한 運動感覺을 수반치 않는다.<sup>53)</sup> 일반적으로 천정이 돌고, 주위사물이 빙빙 돈다고 할 때, 回轉性 眩暈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는 末梢 前庭系의 障礙에 의해서 생기며, 배를 탄 기분이라든가, 공중에 몸이 붕 뜬 기분일 때는 動搖形인 非回轉性 眩暈으로 여겨지고, 이는 貧血이나 血壓異常, 更年期 障礙, 筋收縮性 頭痛症 등에서 흔히 본다.<sup>54)</sup>

### 2). 分類

그 分類는 前庭性인 眞性眩暈과 非前庭性인 假性眩暈으로 나누어 分類해 볼 수 있다.

먼저 眞性 眩氣症의 機轉, 原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眞性眩暈

이 發生機轉은 平衡感覺의 障礙機轉 밖에 되지 않는다. 平衡感覺의 유지기구는 복잡하지만, 三半規管-前庭神經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眼筋이 관여된다. 大別해서 5개의 部位障礙를 살펴보면,

a. 耳性(迷路性, 前庭神經性): 三半規管이 신체의 平衡調節器로 있기 때문에 迷路 또는 前庭神經傷害에 의한 眩氣症은 종종 인지된다. 위치적 관계로 聽器管, 聽神經도 동시에 傷害되는 것이 많으며 耳鳴, 難聽을 수반하기 쉽다.

b. 腦幹性: 前庭神經이 腦幹에 들어간 후의 傷害 전부를 포함한다. 前庭神經核, 小腦와 連絡路, 瞳眼神經, 外轉神經, 滑車神經과 連絡路, 등 腦幹의 여러가지 構造傷害에 의해서 眩氣症을 일으킨다.

c. 眼筋性: 眼筋麻痺의 발병초기는 종종 眩氣症을 보는 것이 있다. 이것은 眼筋麻痺에 따라 復視를 일으키며, 外界의 인식이 급히 변화되는 일 및 眼筋內의 고

50. 章眞如: 肝膽論, 湖北, 湖北科學技術出版社, pp.104, 1986.  
"眩暈目眩, 多爲肝血不足, 是根據(內經)'諸風掉眩, 皆屬於肝'立論의其原因是腎水不足, 水不涵木, 肝木偏旺, 導致肝陽上亢....."  
51. 金完熙 外 1人: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p.151, 1965.  
52. 洪彰義 外 3人 編著: 家庭醫學, 서울, 醫學教育研究院, p.98, 1990.  
53. 吉利和 外 3人: 內科診斷學, 東京, 第一出版社, p.189, 1992.  
54. 이상복: 어질증을 수반하는 신경질환의 유형과 치료(II), 診斷과 治療 第13第10號, Diagnosis and Treatment Vol. 13, No. 10, Oct, p.1212, 1993.

49. 楊思樹 外 2: 中醫臨床大全, 北京, 北京科學記述出版社, p.188, 1991.

유지각기가 眼筋麻痺로 인해서 변조되는 것 등이 생각 된다.

d. 小腦性: 小腦半球의 傷害時에는 거의 眩氣症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前庭小腦路 및 이것에 관계 있는 小腦核 傷害에서는 眩氣症을 수반한다.

e. 大腦皮質性: 癇疾發作的 前兆로서 종종 眩氣症을 보이는 것은 大腦皮質의 이상흥분으로 인한 眩氣症이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는 드물다.

上記부위에 傷害를 일으키는 原因으로서는

a. 循環障礙: 특히 椎骨腦底動脈循環不全(vertebro-basilar artery insufficiency), 低血壓, 起立性 低血壓(自律神經障礙, Shy-Drager 症候群, 갈색세포종), 心搏出量低下에 의한 것(각종 心block, 各種 不整脈, 大動脈辦狹窄症) 등이 있다.

b. 炎症: 迷路炎, 前庭神經炎, 귀의 帶狀疱疹이나 腦炎 등이 있다.

c. 中毒: alcohol, Aleviatin, streptomycin, kanamycin, quinine 등에 의해 보이는 것이 있다.

d. 腫瘍: 小腦, 腦幹部 부근의 腫瘍에 의한 것이 있다. 垂直性 眼震을 수반하는 것이 많다.

e. 그밖에 原因不明인 것이 적지 않다. 특히 Meniere 병은 內耳의 림프水腫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原因은 불명이다.<sup>55)</sup>

### ②. 假性 眩暈(non-vestibular vertigo)

a. 眼性眩暈(visual vertigo): 視覺系의 이상으로 나오는 것이며 굴절이상이나, 조절장애, 外眼筋麻痺 및 動搖視 등 異常眼球運動 등 안과적 질환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한다.

b. 頸性眩暈(cervical vertigo): 頸椎 및 頸筋의 이상으로 생기는 眩暈이다.

c. 全身疾患에 수반하는 어지럼증: 低血壓, 高血壓, 頸動脈 過敏症候群 등 循環器疾患에서 腦虛血을 보이며서 어지럼증이 올 수 있고, 貧血이나, 赤血球增多症 등 血液疾患 그리고 底血糖 등 代謝性 疾患에서도 같은 기전으로 어지럼증이 온다.

d. 心因性 眩暈(psychogenic vertigo): 不安神經症이나, 히스테리, 心氣症, 神經衰弱, 憂鬱症, 過勞, 不眠 및

恐怖證 등에서도 어지럼증을 흔히 보게 된다.<sup>56)</sup>

### 末梢性 眩暈과 中樞性眩暈의 鑑別 診斷<sup>57)</sup>

증 상	末梢性	中樞性
Nausea, Vomiting	Severe	Moderate
Imbalance	Mild	Severe
Hearing loss	Common	Rare
Oscillopsia	Mild	Severe
Neurologic symptoms	Rare	Common
Compensation	Rapid	Slow

### ③. 臨床症狀로 본 Vertigo<sup>58)</sup>

a. 頭痛을 수반한 vertigo: 小腦出血, 蜘蛛膜下出血, 良性再發性(偏頭痛性)眩氣症(benign recurrent vertigo, migraine type)

b. 聽覺증상 수반한 vertigo: 돌발성 난청, Meniere 병, NVC(neurovascular compression syndrome)(神經血管 壓迫症候群)

c. 단독 (solo vertigo): 머리를 움직일 때(정형적)(typical solo vertigo) 나타나며, 良性發作性 頭位變換眩氣症, 惡性持續性 頭位 眩氣症(malignant persistent positional vertigo)에서 볼수 있으며, 목을 비틀때(頸性 vertigo), 左上肢 運動時(subclavian steal phenomenon)나, 前庭神經炎(vestibular neuronitis), 腦幹梗塞(Wallenberg 症候群) 癇疾性 vertigo, 一過性 腦虛血發作 神經血管 壓迫症候群(neurovascular compression syndrome)에서 나타난다.

이상에서 眩暈의 原因 및 病因別 분류를 살펴 보았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지러움증을 主訴로 진찰 받은 환자를 病因別로 살펴볼 때 病因을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1/3 이상으로 아직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sup>59)</sup>

56. 이상복: 上揭書, pp.1071-1074.

57. 최길수: 어지러움증을 수반하는 신경외과 질환의 유형과 치료, 診斷과 治療 第13卷 第10號, Diagnosis and Treatment, Vol.13, No.10, Oct. p.1219, 1993

58. 徐舜圭: 成人病, 老人醫學, 서울, 高麗醫學, p.239, 1992

59. 차창일: 어지러움증(현훈, 현기증)을 수반하는 이비인후과

55. 吉利和: 上揭書, pp.189-190.

### 3. 眩暈의 治療에 관한 考察

內經에는 眩暈의 治療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이후에 仲景이 각각 茯苓桂枝白朮甘草湯<sup>60</sup>과 眞武湯<sup>61</sup>을 상용하였다.<sup>62</sup>

李<sup>63</sup>는 眩暈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內傷에 의해 眩暈이 발생함과 여기에 半夏白朮天麻湯이 사용됨을論하였다.

朱<sup>64</sup>는 丹溪心法에서 後代 眩暈治療의 根幹을 이룬 여러 治方을 두었다. 각각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川芎散 治風眩頭暈. 芎朮湯 治冒雨中濕, 眩暈, 吐逆, 頭重不食. 芎朮除眩湯 治感寒濕, 頭目眩暈. 荊黃湯 治頭眩. 芎辛湯 治風寒在腦, 或感邪濕, 頭重痛, 眩暈, 欲倒, 嘔吐不定, 並皆治之. 頭運方 利痰清氣降火. 香橘飲 治氣虛頭暈. 白附子丸 治風痰上厥, 眩暈頭疼. 人參前胡湯 治風痰, 頭暈目眩. 川芎茶調散, 治風眩頭痛. 黑錫丹, 治早期眩暈, 頑更自定, 以爲常, 此因老痰鬱痰所作, 必須此藥.

以上の 處方을 살펴본바 川芎散, 芎朮湯, 芎朮除眩湯, 荊黃湯, 芎辛湯이 外感 風寒濕에 의한 眩暈의 治療이고 頭運方, 白附子丸, 人參前胡湯은 內風으로 因한 痰에 의한 眩暈의 治療이고 香橘飲, 黑錫丹은 虛함에서 오는 眩暈의 治療임을 알 수 있으며 각각 虛實로 나눌 수 있다.

張從政은 그의 醫學思想<sup>65</sup>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邪氣를 驅除하는 것이 主原則이고, 그 구체적인 汗, 吐, 下의 三法中 吐法을 사용 眩暈의 病因이 되는 胸中宿痰을 瓜蒂散으로써 제거하였다.<sup>66</sup>

虛는 각각 肥白人은 清痰降火를 우선함에 補氣藥을兼하고 마른사람이 眩暈하는 것은 滋陰降火하고 抑肝之制를 썼으며,<sup>67</sup> 다음과 같은 處方을 사용하였다.

防風通聖散 治風熱眩暈. 半夏白朮天麻湯 治風痰眩暈. 加味六君子湯 治氣虛痰盛, 兼挾風邪, 眩暈不休者. 六合湯 治風虛眩暈. 四物湯加 秦朮 羌活. 玉液湯 治七情感動, 氣鬱生延, 隨氣上衝, 頭目眩暈, 心嘈忪悸, 肩稜骨痛. 芎朮湯 治冒雨中濕, 眩暈嘔逆, 頭痛不息. 川芎散 治風眩暈. 如肥白人, 氣虛而挾痰者, 四君子湯培蜜灸黃芪, 加半

夏, 橘紅, 或少加川芎, 荊芥穗, 以清利頭目也. 如痰盛而挾氣虛者, 二陳湯加人參, 白朮, 黃芪, 或少加炮附子煎, 入竹瀝, 薑汁服. 如體瘦血虛而痰火兼盛者, 二陳湯合四物, 加片苓, 薄荷煎, 入竹瀝, 薑汁, 童便服<sup>68</sup>

龔은 <萬病回春><sup>69</sup>과 <壽世保元><sup>70</sup>에서 肥人和瘦人の 治療의 차이를 두고 四君子湯와 四物湯을 각각 쓰고 腎虛한 즉 滋陰降火湯, 清離滋坎湯을 쓰고, 氣虛한 즉 補中益氣湯, 氣血虛한 즉 十全大補湯, 痰火에 의한 즉 清暈化痰湯, 二陳湯, 清陽除眩湯을 썼다. 그리고 風熱이 上攻한즉 防風通聖散을 썼다.

李<sup>71</sup>는 <醫學入門>에서 크게 因虛, 痰火, 外感에 의한 眩暈으로 각각 나누어 治療을 하였으며, 卽 氣血이 虛弱하고 腎虛한 眩暈에는 補中益氣湯, 四君子湯, 十全大補湯, 腎氣丸, 古芎歸湯, 順元散, 黑錫丹 등을 쓰고, 痰火에 의한 眩暈에는 二陳湯, 古荊黃湯, 半夏白朮天麻湯, 七氣湯, 玉液湯, 補虛飲 등을 쓰고, 外感邪에 의한 眩暈에는 川芎茶調散, 參蘇飲, 川芎石膏散, 山茱萸湯, 四物湯, 五賊散, 附子理中湯, 三五七散, 十味香茹飲,

- 60.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p.63, 1985.  
“傷寒, 若吐, 若下後, 心下逆滿, 氣上衝胸, 起則眩暈, 脈沈緊, 發汗則動經, 身振振搖者, 茯苓桂枝白朮甘草湯.”
- 61. 蔡仁植: 上揭書, p.73  
“太陽病, 發汗, 汗出不解, 其人仍發熱, 心下悸, 頭眩, 身瞤動, 振振欲墮地者, 眞武湯, 主之.”
- 62. 蔡仁植: 上揭書, p.63.  
“傷寒, 若吐, 若下後, 心下逆滿, 氣上衝胸, 起則眩暈, 脈沈緊, 發汗則動經, 身振振搖者, 茯苓桂枝白朮甘草湯.”
- 63. 李東垣: 上揭書, p.185.  
“半夏白朮天麻湯.....食不能, 停痰唾稠粘, 湧出不止, 眼黑頭旋, 惡心煩悶, 氣短促, 上喘無力, 自言心神顛倒, 目不敢開, 如在風雲中, 頭苦痛如裂, 身重如山, 四肢厥冷, 不得臥, 余料前證, 是胃氣已損, 復下兩次, 則重虛其胃, 而痰厥頭痛, 作矣, 與此藥而治之.”
- 64. 朱震亨: 上揭書, pp.459-460.
- 65. 洪元植 著: 上揭書, p.219.
- 66. 張子和: 上揭書, 卷五 p.7.  
“夫婦人頭風眩暈.....胸中宿痰之邪然也, 可用瓜蒂散吐.....之.”
- 67. 虞搏: 上揭書, p.171.  
“大抵人肥白而作眩者, 宜清痰降火爲先, 而兼補氣之藥. 人黑瘦而作眩者, 治宜滋陰降火爲要, 而帶抑肝之劑.”
- 68. 虞搏: 上揭書, p.172.
- 69. 龔延賢: 萬病回春, 서울, 醫聖堂, pp.120-121, 1993.
- 70. 龔延賢: 壽世保元, 서울, 醫聖堂, pp.288-289, 1993.
- 71. 李樾: 上揭書, pp.357-358.

영역의 질환, 診斷과 治療 第13卷 第9號, Diagnosis and Treatment, Vol. 13, No. 9, Sep. p.1076, 1993.



芎朮湯, 芎朮除眩湯, 腎著湯, 玉壺丸을 썼다.

許는 '丹溪', '李梴' 등의 以前醫家の 眩暈 치료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六種으로 眩暈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치료하였다.<sup>72)</sup>

風暈 傷風眩暈, 惡風, 自汗, 或素有頭風而發作, 宜川芎散, 芎朮散. 熱暈 火熱上攻, 煩渴引飲, 或暑月熱盛, 宜大黃散, 荊黃湯. 痰暈 痰盛嘔吐頭重不舉, 眩而悸是飲, 宜半夏茯苓湯, 白附子丸, 天麻半夏湯, 人參前胡湯, 清暈化痰湯, 澤瀉湯. 氣暈 七情過傷氣鬱生涎, 痰涎米塞心竅而眩暈, 眉稜骨痛, 眼不可開, 宜玉液湯, 補虛飲. 虛暈 內傷氣虛而暈 宜補中益氣湯, 失血過多而暈, 宜芎歸湯, 宜香橘飲, 滋陰健脾湯. 老人眩暈, 宜黑錫丹 腎虛氣不歸元宜十全大補湯. 濕暈 冒雨傷濕, 鼻塞聲重 宜芎朮湯.

方賢은 眩暈의 通治로서 羚羊角散<sup>73)</sup>을 사용하여 外感 風邪 및 痰으로 眩暈을 보고 치료하였으며 以外 以前 醫家の 治療법을 따랐다.

張은 虛해서 眩暈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여<sup>74)</sup> 補虛하는 處方을 많이 사용하였다.<sup>75)</sup>

陽中之陽虛者, 四君子湯, 五君子煎, 歸脾湯, 補中益氣湯, 如兼嘔吐者, 宜聖朮煎, 太加人參之是也. 陰中之陽虛者, 宜補其精, 如五福飲, 七福飲, 左歸陰, 右歸飲, 四物湯之類是也. 上虛者, 大補元煎, 十全大補湯. 濕痰者, 多宜二陳湯, 火者, 加酒芩, 狹氣虛者, 相火也, 治痰爲先, 狹氣藥降火, 如東垣半夏白朮天麻湯之類. 火動其痰, 用二陳湯 加黃芩 蒼朮 羌活. 傷濕頭暈, 除濕湯. 有痰者, 青州白丸子. 張은 眩暈을 痰火로 보며, 清火豁痰 爲主하며 三因芎辛湯, 半夏蒼朮湯, 導痰湯, 養正丹, 川芎茶調散, 半夏白朮天麻湯, 二陳湯 加減을 사용하였다.<sup>76)</sup>

周<sup>77)</sup>는 眩暈을 體虛之人的 外感 및 七情內傷으로 보고 補虛, 祛風化痰하였다.

清暈化痰湯 治風火痰眩暈. 滋陰健脾湯 治心脾虛悒痰飲作眩 或 嘈雜. 一曰 勞傷中氣虛而暈者 補中益氣湯, 滋陰健脾湯. 一曰 失血過多孤陽浮越而暈者 宜芎歸湯 加炒乾薑 或 加味四物湯. 一曰 房勞傷精以致腎氣不能歸元而暈者 宜腎氣丸 加鹿茸 或 黑錫丹. 一曰 陰虛火動脈數而暈者 宜滋陰降火湯 加天麻, 川芎, 山梔, 竹瀝少許. 一曰 痰火動甚嘔吐而暈者 宜清暈化痰湯. 一曰 火熱上攻挾風

而暈者 宜荊黃湯. 一曰 七情過傷氣鬱生涎 痰迷心竅而暈者 或 眉稜骨痛眼不開者 宜七氣湯, 玉液湯. 一曰 風邪入腦 項強脈浮 惡風自汗而暈者 宜養血祛風湯, 白芷丸. 一曰 寒邪入腦 無汗脈緊 拘攣頭痛 而暈或喜接熱受者 宜三五七散. 一曰 傷暑煩熱脈虛而暈者 宜十味香薷散. 一曰 冒雨傷濕 鼻塞聲濁 頭重脈細而暈者 芎朮除眩湯.

現代 中醫 臨床의 治療에서는 그 辨證에 있어 標本과 虛實을 각각 나누어 本虛는 肝腎陰精의 虧損이니 滋養陰精하며 또한 心脾의 氣血不足이니 補益氣血하고, 表實은 風陽이 上亢한 것이니 熄風潛陽하며 痰濁中阻한 것은 化痰和中한다.<sup>78)</sup>고 하였다.

### III. 考察

眩暈은 多樣한 病因病機를 가지며 隨伴하는 證狀 또한 다양하다. 특히 精神醫學의 病因과 病機에 의해 많이 誘發 될 수 있으며 동시에 精神醫學의 證狀을 많이 隨伴하기도 하여, 東醫精神醫學의 病因<sup>79)</sup>을 보면 크게 火, 痰, 血, 腎虛로 나눌 수 있으며, 火는 生理上 陽氣에서 化하는 것이며, 生命의 動力으로 一切의 生命 活動을 비롯하여 生理作用을 하면서 一身을 流走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病理上으로 六淫의 하나이며 內傷七情, 五志過極이 일정한 조건에서 모두 火로 化한다. 卽 生理的 火의 過亢이 病理上 火로 轉換한다. 內經에서도 "모든 躁證과 狂證은 火에 屬한다."<sup>80)</sup>라 하여 精神疾患의 대표적 病證이라 할 수 있는 癲狂의 病因을 火에서 온다고 하였다. 朱<sup>81)</sup>도 "感情의 抑鬱이 痰을 助成하고, 그 痰이 癲狂妄之證을 일으킨다."라 하여 精神疾患의 火因說을 뒷받침 하였다. 그리고 火 즉 內熱이 盛해지는 것은 七情所傷 卽 感情의 갈등으로 氣가 鬱滯되든가 또한 膏粱珍味の 過剩攝取나 偏食으로 胃熱이 盛해

73. 方賢: 上揭書, p.541.

74. 張介賓: 上揭書, p.320.

75. 張介賓: 上揭書, p.322.

76. 張璐: 上揭書, 卷六 p.298.

77. 周命新: 上揭書, 卷三 p.176.

78. 楊志一: 中醫臨床手冊,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p.45, 1979.

79. 黃義完: 上揭書, p.157.

80. 洪元植: 上揭書, p.188.

<案問: 至眞要大論> "諸躁狂越, 皆屬於火."

81. 朱震亨: 上揭書, p.378.

"五志之火, 因七情而起, 鬱而成痰, 故爲癲癩狂妄之證."

72. 許淩: 上揭書, 外形篇 pp.62-66.

지는 것이 原因이다. 痰因說에 관해서는 朱<sup>82)</sup>는 “癩證은 陰症에 屬하고 狂症은 陽證에 屬하느냐 癩證은 많이 기빠하고 狂證은 많이 怒한다. 대개 痰이 가슴에 鬱結해서 생긴다.”고 하여 癩狂의 發證에 痰이 관여 함을 나타내고 있고 역시 “七情이 鬱結해서 痰을 形成해서 精神疾患을 일으킨다.”<sup>83)</sup>라하여 七情의 過傷에서 생기는 鬱火는 드디어 痰을 생기게 하는 原因이 된다고 하여 역시 痰因說을 뒷받침하고 있다. 血因說에 관해서는 內經<sup>84)</sup>에 營血이 물질적 基礎를 이루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로써 營血은 精神活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營血이 五臟을 養하고, 七情이 五臟의 機能에서 發하는 것으로 營血의 盛衰는 곧 精神機能의 靈敏과 관계가 깊다. 특히 營血의 生成에 있어 脾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統括하는 것은 心이며, 이를 受藏하는 것은 肝이라 하였는데, 心은 神을 藏하여 一身의 精神作用을 統括하며, 脾는 思情이 發하는 器官이며, 肝은 怒情이 發하는 器官이다. 그러므로 지나친 思索이나 憂慮는 心脾二經을 傷할 것이며, 傷脾로 인한 營血의 化成機能이 衰弱해지면 肝에 受藏될 營血이 不足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肝虛하여 媒사에 의욕을 잃고, 우유무단한 성격을 이루게 되어 결단력이 없어지니, 더욱 근심, 걱정, 불안, 恐懼의 情이 심해지는 것이다.<sup>85)</sup> 이를 臨床面에서 볼 때, 産後나 大手術後에 失血을 많았을 경우 흔히 神經症이 發하며, 또 神經安靜劑나 鎮痛劑, 睡眠劑 등을 長服한 환자들이 모두 血虛한 症候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營血이 神經精神系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實證할 수 있다.<sup>86)</sup>

이상의 3가지 病機에 대해 許는 “驚悸는 瘦人에 있어서는 血虛해서 오고 肥人은 痰飲으로 온다.”<sup>87)</sup>고 하고 “怔忡은 痰은 下焦에 있고, 火는 上焦에 있어 怔忡한다.”<sup>88)</sup>고 하고 “健忘도 痰에 의하거나 血消散 卽 血虛해서 온다.”<sup>89)</sup> 하였다. “癩病은 風眩之病 이라 하여 痰熱이 胸間에 싸여 발생한다고 한다.”<sup>90)</sup>라 하여 東醫寶鑑에서의 精神醫學의 疾患의 病機를 보면 火, 痰, 血虛의 病機가 主한다. 이외에 腎虛가 精神醫學의 原因이 되는 것은 腎虛하면 不能制火(心君火)하므로, 心火

가 妄動하여 不眠, 怔忡, 妄言, 狂亂 등의 原因이 되기도 한다. 즉 ‘腎虛不能制火’하거나, ‘心火盛腎水衰’의 相關關係로 설명되어 진다.<sup>91)</sup>

이상에서 東醫精神醫學에서 나타나는 諸病因을 살펴 보았는바 여기에 비해 眩暈에 있어서의 病因病機를 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 至眞要大論>의 ‘諸風掉眩, 皆屬於肝’의 理論의 根據에서 肝陽上亢<sup>92)93)94)95)</sup>이 眩暈의 그 主된 病因

83. 朱震亨: 上揭書, p.378.

“因七情而起, 鬱而成痰, 故爲癩癪狂妄之證.”

84. 洪元植: 上揭書, p.224.

<靈樞: 本神篇> “血, 脈, 營, 氣, 精, 神, 皆五臟所藏也, 肺藏氣, 氣舍魄, 脾藏營, 營舍意, 肝藏血, 血舍魂, 心藏脈, 脈舍神, 腎藏精, 精舍志.”

85. 金相孝: 東醫神經精神科學, 서울, 杏林出版, p.67, 1884.

86. 黃義完: 上揭書, p.162.

87. 許浚: 上揭書, 內經篇 p.167.

“驚悸者, 有時而作, 血虛者, 宜朱砂安神丸, 有痰者, 宜加味定志丸, 大概, 屬血虛與痰, 瘦人, 多是血虛, 肥人, 多是痰飲, 時覺心躁動者, 亦是血虛.”

88. 許浚: 上揭書, 內經篇 p.172.

“怔忡, 心虛而痰鬱則耳聞大聲, 目擊異物, 遇險臨危, 觸事喪志……怔忡因驚悸, 久而成也, 痰在下, 火在上, ……心下有水氣.”

89. 許浚: 上揭書, 內經篇 p.174.

“健忘……丹溪曰, 健忘之證, 精神短少者, 多亦有痰者……健忘者……主心脾二經, 蓋心之官則思, 脾之官亦主思, 此有思慮過多, 心傷則血耗散, 神不守然而忘也, 治法, 必先養其心血, 理氣脾土.”

90. 許浚: 上揭書, 內經篇 p.178.

“癩癪, 風眩之病, 起於心氣不足, 胸上蓄熱, 實痰熱相感, 而動風, 風心相亂, 則悶瞶, 故謂之風眩也. 痰在膈間, 則眩微, 不仆, 痰溢膈上, 則眩甚, 仆倒於之, 而不知人, 名之曰癩癪……”

91. 黃義完: 上揭書, p.162.

92. 劉河間: 上揭書, p.275.

“諸風掉眩, 皆屬於肝木, 掉搖也, 眩昏亂旋運也, 風主動故也.”

93. 張介賓: 上揭書, p.321.

“有大怒之後木肆其強而暈者……”

94. 葉天士: 上揭書, p.35.

“經云, 諸風掉眩, 皆屬於肝, 頭爲六陽之首, 耳目口鼻皆系清空之竅, 所患眩暈者, 非外來之邪, 乃肝膽之風陽上冒耳, 甚則有昏厥跌仆之虞.”

95. 林佩琴: 上揭書, p.347.

“頭爲諸陽之會, 煩怒傷陽, 陽升風動, 上擾顛頂, 耳目乃清空之竅, 風陽旋沸, 斯眩暈作焉, 良由肝膽乃風木之臟, 相火內寄, 其性主動主升.”

82. 朱震亨: 上揭書, p.362.

“癩病陰狂屬陽, 癩多喜而狂多怒, 大率多因痰結於心胸間.”

病機이다. 그 病機는 腎水不足으로 腎水가 木을 滋養하지 못하여 肝木이 偏旺하여, 肝陽이 風으로 化하여 肝風이 上擾하여 肝에 熱이 偏重된 때문이거나<sup>96)</sup>, 或 憂鬱과 惱怒가 심하여 肝의 條達機能을 失調하여 肝氣가 鬱結하여 氣鬱이 火로 변하고 이것이 傷陰하여 肝陰이 耗傷하여 風陽이 動하여서 頭目을 上擾하여 眩暈을 發生한다.<sup>97)</sup> 卽 오랜동안 憂鬱惱怒의 感情이 翳싸여 있으면 肝失條達, 肝鬱氣滯, 氣鬱化火하여 肝陰이 消耗된다. 이때 肝火偏亢하고 風陽이 升動하여 清竅를 上擾하면 眩暈이 일어난다. 또 腎陰이 平素 虛하여 肝을 滋養하지 못하고 肝失滋養의 상태가 되면 肝陰이 不足해지는데 이때 陰虛陽亢한다. 그리고 風陽이 上擾하면 眩暈이 발생한다.<sup>98)</sup> 痰으로 인해 眩暈이 誘發되니 朱<sup>99)</sup>는 “眩暈은 痰을 끼고 氣虛와 火를 나란히 하고 있다. 故로 治痰이 爲主가 되고 補氣藥과 降火藥을 佐한다. 痰이 없으면 眩暈하지 않는다. 그리고 火로 인해서 痰이 動한다.”고 하고, 張<sup>100)</sup>도 胸中의 宿痰이 邪氣로 作用하여 眩暈함을 말하고 있다. 虞<sup>101)</sup>와 李<sup>102)</sup>는 肥白人에 있어 濕痰이 病因으로 作用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龔<sup>103)</sup>, 許<sup>104)</sup>, 周<sup>105)</sup>은 內傷七情이 鬱結해서 痰을 形成하고 이 痰이 眩暈을 誘發한다고 하여 痰因說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現代 中醫學에서는 飲食不節하거나 肥甘厚味를 過多하게 먹어 脾胃를 損傷하여 痰飲을 형성해 眩暈을 誘發하기도 한다.<sup>106)</sup>라 하여 과거의 痰의 발생과정과는 다르게 보았다.

腎水不足하면 眩暈을 誘發하니 <靈樞: 海論>에서 髓海不足 卽 腎水不足해서 眩暈됨을 말하고 있는 바<sup>107)</sup> 腎水不足하면 相火가 上炎하며 이로써 風陽이 動하게 되어 眩暈하게 된다.<sup>108)109)110)111)112)113)114)</sup> 또한 腎水不足으로 相火가 上炎함에 痰이 火에 의해 上衝하여 眩暈이 일어나니 痰에 의한 眩暈도 腎水不足으로 비롯된다. 그러므로 腎水不足은 肝陽과 痰의 기본적인 病機로써 작용하며 眩暈을 발생한다. 氣血虛하면 眩暈하니 <靈樞: 大惑論>에 體虛 할 때 邪氣가 入해서 眩暈한다.<sup>115)</sup> 하였으니 憂思勞倦과 飲食失節에 의해 脾胃를 損傷하거나, 先天的 稟賦가 不足하거나 나이가 들

어 陽氣가 虛衰하면 또한 脾胃가 虛弱해지니 이리하여 水穀의 運化에 障礙를 주어 氣血을 生하지 못하고, 或

97. 上海中醫學院 編: 上揭書, p.406.

98. 孫淑英: 問答式 韓方內科學, 서울, 成輔社, p.294, 1991.

99. 朱丹溪: 上揭書, p.458.

“頭眩, 痰挾, 氣虛併火, 治痰爲主, 挾補氣藥, 及降火藥, 無痰則不作眩, 痰因火動.”

100. 張子和: 上揭書, 卷五 p.7.

“夫婦人頭風眩暈 登車乘船亦眩暈眼澁 手麻髮退 健忘喜怒胸中宿痰之邪然也.”

101. 虞搏: 上揭書, p.171.

“氣虛肥白之人, 濕痰滯於上, 陰火起於下, 是以痰挾虛火, 上衝頭目, 正氣不能勝敵, 故忽然眼黑生花……”

102. 李梴: 上揭書, p.357.

“大概, 肥白之人, 多濕痰, 滯於上, 火起於下……”

103. 龔延賢: 上揭書, p.220.

“氣鬱生痰, 下虛上實, 皆頭暈眩風……”

104. 許浚: 上揭書, 外形篇 p.65.

“氣暈 七情過傷氣鬱生涎, 痰涎塞心竅而眩暈, 眉稜骨痛, 眼不可開.”

105. 周命新: 上揭書, 卷三 p.176.

“蓋體虛之人, 外感邪氣, 內傷七情鬱結 成痰之致也.”

106. 上海中醫學院 編: 上揭書, p.407.

107. 洪元植: 上揭書, p.269.

“髓海不足, 則腦轉耳鳴, 脛眩眩暈, 目無所見……”

108. 虞搏: 上揭書, p.171.

“若夫黑瘦之人, 軀體薄弱, 眞水虧欠, 或勞役過度, 相火上炎, 亦有時時眩暈, 何濕痰之有哉.”

109. 龔延賢: 上揭書, p.287.

“腎家不能納氣歸元, 使諸氣逆奔而上, 此眩暈之出於腎氣虛也明矣.”

110. 李梴: 上揭書, p.357.

“瘦人, 多腎水, 虧少, 相火, 上炎而眩暈, 所謂風勝則地動, 火得風則焰旋, 是也.”

111. 方賢: 上揭書, p.539.

“眩暈分之爲二, 皆有痰火爲病, 以此分爲二者, 眩數雖屬痰火, 未嘗不由 腎虛.”

112. 張介賓: 上揭書, pp.321-322.

“有男子縱慾氣隨精去而暈者,……此皆傷其陰中之陽也,……至若年老精衰勞倦日積而忽患不眠忽苦眩暈者, 此榮衛兩虛之致然也.”

113. 林佩琴: 上揭書, p.347.

“或由冬藏不密, 或由高年腎液已衰, 水不涵木, 或由病後精神未復, 陰不吸陽, 以至日昏耳鳴, 震眩不定……”

114. 上海中醫學院 編: 上揭書, pp.406-407.

115. 洪元植: 上揭書, p.345.

“臟腑, 筋骨, 血氣之精, 如脈竝爲目系, 上屬於腦, 後出於項中, 故邪中於項, 因連其身之虛, 其入甚則隨限系而入於腦, 入於腦, 則腦轉, 腦轉則引目系焉, 則目眩以轉矣.”

96. 章真如: 上揭書, p.104.

“腎水不足, 水不涵木, 肝木偏旺, 導致肝陽上亢, 肝風上擾, 也有偏重肝熱, 因起肝陽上亢者……”

은 病이 오래되어 氣血을 損傷하거나 失血過多 後 血의 消耗에 따라 氣가 虛하여 淸陽이 不振하니 淸氣不升하여 眩暈한다. 또한 血이 虛하면 肝을 營養하지 못하여 肝風內動하여 眩暈이 발생한다.<sup>116)</sup> 이 모든 것이 體虛 卽 氣血이 虛한 卽 眩暈함을 말하고 있다. 117)118)119)120) 外邪에 의해서 眩暈하니 內經에 厥陰風木이 邪氣로 작용하여 眩暈함을 말하고 있다.<sup>121)</sup> 또한 體虛를 바탕으로 外邪가 작용하여 眩暈함도 나타내고 있으니,<sup>122)</sup> 이러한 內經의 病機를 바탕으로 이후 外感邪氣가 各各 或은 兼해서 眩暈을 발생시킨다 라고 한다.<sup>123)124)125)126)</sup> 許<sup>127)</sup>는 風, 熱, 濕으로 인한 眩暈을 證狀과 함께 구분지었다. 그러나 현대의 中醫辨證에 있어서는 外感자체가 眩暈을 유발시키는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이상에서 眩暈의 病因病機를 5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크게 肝陽, 痰, 腎虛, 氣血虛, 外感邪氣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東醫精神醫學的 病因인 火, 痰, 血虛, 腎虛와 비교해 볼 때 外感으로 인한 眩暈의 病機를 除한다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痰의 病機에 있어 '痰迷心竅'라 하여 神을 藏하는 心을 痰이 迷惑하면 精神科의인 疾患이 많이 생기며, 眩暈에 있어서도 歷代醫家들의 이론에 의하면 七情氣鬱이 生痰하여 眩暈한다.<sup>128)</sup>라하며, 肝陽에 의한 眩暈 또한 情緒鬱結하여 風陽이 上擾하여 眩暈하니<sup>129)</sup> 모두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朱<sup>130)</sup>는 情志鬱結이 生痰하여 精神科의 疾患을 나타낸다고 論하고 있어 七情이 各各의 原因病機로 作用함을 나타내고 있다.

眩暈에 있어서 洋方的인 이해를 보면 平衡障得로서 前庭器官의 機能障得에 의해 回轉感, 不動感을 느끼는 眞性眩暈과 非前庭性으로서 回轉感을 느끼지 않는 假性眩暈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구분에 의한 症狀의 구분은 回轉感 이외에는 없으며 단지 誘發器官에 의한 구분이 있을 뿐이어서 韓方的인 眩暈의 分類와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思料된다. 그러나 非前庭性인 假性眩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全身症狀에 의해 眩暈이 생기며 高血壓, 低血壓 등의 循環器 疾患이나 貧血, 赤血球增多症 등의 血液疾患, 底血糖 등의 代謝性 疾患에

의한 眩暈은 肝陽上亢, 氣血虛의 眩暈과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不安神經症이나, 히스테리, 心氣症, 神經衰弱, 憂鬱症, 過勞, 不眠 및 恐怖症 등에서 어지럼증을 呼訴하는 것을 보아 洋方的으로도 精神科 영역에서 차지하는 眩暈이 韓方에서의 七情傷에 의해 眩暈을 誘發하는 것과 같아 眩暈과 精神醫學的인 關係를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洋方에서 原因이 알려져 지 않은 眩暈이 1/3이상이라<sup>131)</sup> 하며 韓方과의 關係를

117. 巢元方: 上揭書, p.71.  
“風頭眩者, 有血氣虛, 風邪入腦而引目系故也.”
118. 朱震亨: 上揭書, p.458.  
“頭眩, 痰挾, 氣虛併火, 治痰爲主…….”
119. 許浚: 上揭書, 外形篇 p.61.  
“眩暈皆稱爲上盛下虛, 皆虛者, 氣與血也, 實者痰涎風火也.”
120. 張介賓: 上揭書, pp.320-321.  
“眩暈一證, 虛者, 居其八九而, 兼火兼痰者, 不過十中一二耳, 原其所由則, 有勞倦過度而暈者, 有飢飽失時而暈者, 有嘔吐傷上而暈者, 有泄瀉傷下而暈者, 有大汗亡陽而暈者, 有眩目驚心而暈者, 有焦思不釋而暈者, 有被毆被擣氣脫而暈者, 有悲哀楚大呌大呼而暈者, 此皆傷其陽中之陽也, 又有吐血, 衄血, 便血而暈者, 有癰膿大潰而暈者, 有金石被傷失血痛極而暈者, 有婦女崩淋產後去血而暈者, 此皆傷其陰中之陽也.”
121. 洪元植: 上揭書 p.181, p.184, p.137.  
“厥陰之勝, 耳鳴頭眩, 憤憤欲吐, 胃隔如塞.” “厥陰司天, 客勝則耳鳴掉眩, 甚則咳.” “歲木太過, 風氣流行, 脾土受邪, 民病飧泄, 食減, 體重飧泄, 食減, 體重煩冤, 腸鳴腹之滿, 上應歲星, 甚則忽忽善怒, 眩冒癩疾.”
122. 洪元植: 上揭書, p.345.  
“臟腑, 筋骨, 血氣之精, 如脈竅爲目系, 上屬於腦, 後出於項中, 故邪中於項, 因連其身之虛, 其入甚則隨眼系而入於腦, 入於腦, 則腦轉, 腦轉則引目系焉, 則目眩以轉矣.”
123. 巢元方: 上揭書, p.71.  
“風頭眩者, 有血氣虛, 風邪入腦而引目系故也.”
124. 朱震亨: 上揭書 p.458, p.460.  
“頭眩, ……或因外感風暑, 或因內動七情…….”
125. 龔廷賢: 上揭書, 卷上 p.220.  
“風寒暑濕, 氣鬱生痰, 下虛上實, 皆頭暈眩風…….”
126. 張璐: 上揭書, 卷六 p.298.  
“外感六淫, 內傷七情, 皆能眩暈…….”
127. 許浚: 上揭書, 外形篇 pp.63-66.
128. 龔廷賢: 壽世保元, 서울, 醫聖堂, p.287, 1993.  
“喜怒哀樂, 悲恐憂思, 鬱而生痰, 隨氣上厥, 七情致虛而眩暈也.”
129. 上海中醫學院 編: 上揭書, p.406.
130. 朱震亨: 上揭書, p.378.  
“五志之火, 因七情而起, 鬱而成痰, 故爲癩癩狂妄之證.”
131. 차창일: 어지러움증(현훈, 현기증)을 수반하는 이비인후과

116. 上海中醫學院 編: 上揭書, p.406.

충분히 연구해 볼만하다.

治療를 비교해 보면 精神科의인 證狀의 治療는 癲症은 淸心除熱, 去痰寧神, 補陰安神, 順氣化痰하고 狂症은 降火淸心, 豁痰降火, 去痰淸神, 補血安神, 化痰順氣하며,<sup>132)</sup> 驚悸, 怔忡은 健脾養營安神, 大補氣血, 益腎水降心火, 去痰淸神, 鎮驚安神한다.<sup>133)</sup> 癲癇의 治法을 보면 開痰鎮心神, 淸心除熱, 吐下痰涎한다.<sup>134)</sup> 이로써 볼 때 淸心降火, 安神, 化痰, 補營血, 順氣가 대개의 精神醫學的 治療法이다.

眩暈의 治療를 보면 그 기본적인 病因에 의거하여 肝陽上亢하면 平肝潛陽하며 鎮肝熄風湯, 天麻鉤藤飲 등을 응용 하였고 痰이 病因으로 작용하면, 利痰順氣降火하며 二陳湯加減, 淸暈化痰湯, 白附子丸, 人蔘前胡湯, 天麻半夏湯, 半夏茯苓湯 등을 사용하였다. 특히 氣鬱하여 痰涎이 生하여 眩暈하는 데는 補虛飲, 玉液湯을 이용하였다. 腎虛해서 眩暈을 誘發하는 경우는 補腎益精하며 滋陰降火湯, 淸離滋坎湯 등을 이용하고, 氣血虛하여 생기는 眩暈은 補氣血하고 四物湯, 四君子湯, 補中益氣湯, 十全大補湯 등을 證狀에 따라 사용하였다. 外感에 의해 생기는 眩暈은 각각의 外邪의 구분에 따라 芎藭散, 川芎散, 芎朮湯, 芎朮除眩湯, 荊黃湯, 芎辛湯, 川芎茶調散, 參蘇飲, 五賊散, 腎著湯 등을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淸心降火, 安神, 化痰, 補營血, 順氣가 精神醫學的 治療法이라면 平肝潛陽, 利痰順氣降火, 補腎益精, 補氣血이 眩暈의 治法으로써 痰을 치고, 順氣하며, 降火하며, 補血하는 것은 서로 相通한다고 할 수 있다.

眩暈의 歷代 醫家의 治法에 있어서는 아래 도표에서와 같이 二陳湯 계통의 去痰하는 處方이나 四君子湯, 四物湯, 補中益氣湯 등의 補虛하는 處方 및 川芎散, 芎朮湯, 荊黃湯 등의 外邪에 의해 眩暈하는 處方이 많이 쓰였다.

歷代醫家의 眩暈 處方 頻度標

醫家 處方	李東垣	朱丹溪	虞搏	興廷賢	李樞	許浚	張景岳	張璐	周命新
二陳湯			●	●	●	●	●	●	
半夏白朮天麻湯	●		●		●		●	●	
四君子湯			●	●	●	●	●		
四物湯			●	●	●	●	●		●
補中益氣湯				●	●	●	●		●
十全大補湯				●	●	●	●		
芎朮湯		●	●		●	●			
荊黃湯		●			●	●			●
川芎散		●	●			●			●
玉液湯			●		●	●			
黑錫丹		●			●	●			
淸暈化痰湯				●		●			●
香櫞飲		●				●			
白附子丸		●				●			
人蔘前胡湯		●				●			
防風通聖散			●	●					
七氣湯					●				●
補虛飲					●	●			
川芎茶調散					●			●	
三五七散					●				●

#### IV. 結 論

1. 眩暈의 韓醫學的인 病因病機는 實證인 경우는 肝陽, 痰, 外邪에 의하고 虛證인 경우는 腎水不足, 氣血虛로 區分할 수 있다

2. 眩暈의 洋方的인 이해는 平衡障得으로써 前庭器官의 機能障得에 의해 回轉感을 느끼는 眞性眩暈과, 非前庭性으로서 回轉感을 느끼지 않는 假性眩暈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假性眩暈에 있어 心因性 眩暈은 韓方的인 眩暈의 病因에 의하며 精神醫學的 영역에 속한다고 思料된다.

3. 韓方精神醫學的인 側面에서는, 眩暈과의 病因을 비교해보면 '七情氣鬱而成痰'함에 眩暈을 發하여 七情에 의한 痰이 眩暈誘發의 主病機가 된다고 思料된다.

4. 眩暈의 處方에 있어 二陳湯類(半夏白朮天麻湯, 淸暈化痰湯, 白附子丸, 人蔘前胡湯)가 많이 이용되니 痰이 眩暈을 많이 誘發한다고 思料된다.

영역의 질환, 診斷과 治療 第13卷 第9號, Diagnosis and Treatment, Vol. 13, No. 9, Sep. p.1076, 1993.

132. 金相孝: 上揭書, p.204.

133. 金相孝: 上揭書, p.149.

134. 金相孝: 上揭書, pp.245-246.

參 考 文 獻

1. 金相孝: 東醫神經精神科學, 서울, 杏林出版, 19.
2. 金完熙 外 1人: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5.
3. 朴英培 外 1人: 韓方診斷學, 서울, 成輔社, 1986.
4. 徐舜圭: 成人病, 老人醫學, 서울, 高麗醫學, 1992.
5. 孫淑英: 問答式 韓方內科學, 서울, 成輔社, 1991.
6. 李達浩: 眩氣症, 서울, 麗文閣, 1986.
7. 李鳳教: 症狀鑑別治療, 서울, 成輔社, 1992.
8.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85.
9.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81.
10.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 서울, 新光出版社, 1984.
11. 洪元植 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12. 黃義完: 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1989.
13. 洪彰義 外 3人 編著: 家庭醫學, 서울, 醫學教育研究院, 1990.
14. 이상복: 어질증을 수반하는 신경질환의 유형과 치료(II), 診斷과 治療 第13卷 第10號, Diagnosis and Treatment Vol. 13, No. 10, Oct, 1993.
15. 차창일: 어지러움증(현훈, 현기증)을 수반하는 이비인후과 영역의 질환, 診斷과 治療 第13卷 第9號, Diagnosis and Treatment, Vol. 13, No. 9, Sep. 1993.
16. 최길수: 어지럼증을 수반하는 신경외과 질환의 유형과 치료, 診斷과 治療 第13卷 第10號, Diagnosis and Treatment, Vol.13, No.10, Oct. 1993.
17.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 醫聖堂, 1993.
18. 龔廷賢: 壽世保元, 서울, 醫聖堂, 1993.
19. 方賢: 奇效良方, 香港, 商務出版社, 1977.
20. 上海中醫學院 編: 實用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21.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22. 巢元方: 諸病原候論, 台北, 國立醫學研究所, 1964.
23. 楊思澍 外 2人: 中醫臨床大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24. 楊志一: 中醫臨床手冊,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9.
25. 吳謙: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6.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27. 劉河間: 河間三六書, 서울, 成輔社, 1975.
28.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29. 李挺: 醫學入門, 서울, 高麗醫學, 1989.
30. 林佩琴: 類證治裁, 서울, 成輔社, 1980.
31. 張介賓: 景岳全書, 上海, 上海科學記述出版社, 1984.
32. 張機: 仲景全書, 台北, 集文書局, 1972.
33. 張璠: 張氏醫通, 서울, 一中社, 1993.
34. 張子和: 儒門事親, 台北, 旋風出版社, 1967.
35. 章眞如: 肝膽論, 湖北,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6.
36. 周命新: 醫門寶鑑, 서울, 杏林書院, 1975.
37.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82.
38. 吉利和 外 3人: 內科診斷學, 東京, 第一出版社, 1992.-